

내집단 동일시와 피해 외집단에 대한 배상 의도의 관계: 내집단 사과 후 도덕 신용과 책임 지각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집단 간 배상(intergroup reparation)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내집단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집단 동일시의 두 가지 하위 유형(내집단 애착, 내집단 찬양)에 주목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확장하여, 내집단(가해 집단)이 외집단(피해 집단)에 대해 과거 잘못을 사과한 상황에서 내집단 애착(attachment)과 내집단 찬양(glorification)이 외집단에 대한 후속 배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두 편의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내집단 찬양과 내집단 애착의 차별적 효과를 밝힌 선행 연구(Rocca et al., 2006)에 근거하여, 내집단 찬양은 후속 배상 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내집단 애착은 후속 배상 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동일시 수준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관계를 도덕 신용(moral credit)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책임 지각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매개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내집단 찬양과 준거 변수 간에 연구모형과 일관된 순차적 매개효과가 관찰되었으며, 내집단 애착과 준거 변수 간에는 책임 회피를 통한 단순매개효과만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합의, 그리고 집단 간 화해 및 갈등 해소와 관련된 장래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집단 찬양, 내집단 애착, 외집단 배상, 집단 간 화해

*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 2025,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가해자와 피해자를 수반하는 개인 간 갈등은 종종 가해자의 사과(apology)를 통해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다. 반면에, 한-일 관계나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처럼 국가 간에 가해-피해의 역사가 있는 집단 간 맥락에서는 가해 집단의 사과가 반드시 피해 집단의 용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집단 간 사과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해 집단의 사과가 집단 간 갈등해소 및 화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피해 집단이 가해 집단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지각해야 한다(Hornsey & Wohl, 2013; Philpot & Hornsey, 2008). 특히 국가 간 가해-피해의 역사가 있는 경우 집단 간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 집단이 도덕적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교정함으로써 집단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Nadler & Shnabel, 2008), 이러한 신뢰 구축 과정에서 가해 집단의 구성 주체들이 내집단의 사과를 수용하고 지지함으로써 피해 집단이 사과의 진정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Hornsey & Wohl, 2013). 따라서 집단 간 사과가 집단 간 화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해 집단 대표의 일회성 사과에 그치지 않고, 가해 집단의 구성원들이 사과를 지지하고 집단 간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

집단 간 사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국가 간 가해-피해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가해국 구성원들의 내집단 동일시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외집단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의도가 낮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판찰되었다(예: Castano & Giner-Sorolla, 2006; Doosje et al., 1998, 2006). 그러나, 내집단의 사과가 이루어진 이후 가해 집단 구성원들의 집단 간 태도 및 행동의도에 관해서는 저자들이 알기로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Hornsey와 Wohl(2013)이 제안한 신뢰 기반 모형에 따르면, 가해 집단의 사과가 집단 간 화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해 집단 대표나 실질적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 집단 구성원들이 내집단의 사과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주장과 일관되게, Wenzel 등(2017)은 피해 집단이 가해 집단의 사과가 투표를 통해 집단 다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지각할 때 사과의 진정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며, 이러한 진정성 지각이 가해 집단에 대한 용서를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Zaiser와 Giner-Sorolla(2013)는 가해 집단 구성원들이 내집단의 사과를 빌미로 피해 집단 구성원에게 의무를 전가하는 경우 가해 집단에 대한 피해 집단 구성원의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여 집단 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해 집단의 사과가 집단 간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과에 대한 가해 집단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의도가 중요하다고 전제한다. 이 전제 하에, 외집단(피해국)에 대해 자국 정부(내집단)의 사과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두 가지 집단 동일시 유형(내집단 찬양, 내집단 애착)과 피해국에 대한 후속 배상 의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책임 지각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내집단 동일시의 두 유형(찬양, 애착)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1978; Tajfel & Turner, 1979)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동일시하고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로 인해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내집단 선호편향이 나타난다. 사회정체성 이론의 기본 가정에 대한 비판도 일부 제기되기는 했으나(이에 대한 개관은 Ellemers et al., 2002 참조), 내집단 동일시와 내집단 선호편향 간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Brewer, 2007; Dovidio & Gaertner, 2010).

선행 연구에서 분석한 집단 동일시의 다양한 유형들 가운데, 국가 동일시(national identification)

는 국가 간 맥락에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특히, 자국에 대한 애국심과 외집단 태도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애국심을 다차원적 구조로 정의하고, 자국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긍정적 평가를 수반하는 맹목적 애국주의(blind patriotism)와 자국에 대한 비판적 충성심을 반영하는 건설적 애국주의(constructive patriotism)를 구분한다(Kosterman & Feshbach, 1989; Schatz et al., 1999; Staub, 199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Roccas 등(2006)은 국가 동일시가 내집단 친양과 내집단 애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제안한다. 내집단 친양(ingroup glorification)은 개인이 내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집단의 규범과 상징에 얼마나 복종하는지를 나타낸다. 반면에, 내집단 애착(ingroup attachment)은 개인이 내집단을 얼마나 자신의 일부로 동일시하는지, 그리고 내집단의 성장과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자 하는지를 말한다.

내집단 친양과 애착은 상관은 있으나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며, 집단 간 맥락에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Roccas et al., 2006, 2008). 특히, 가해-피해의 역사가 있는 국가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내집단의 과오나 결함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에서 내집단 친양은 내집단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반응을 예측하는 반면, 내집단 애착은 내집단의 과오를 교정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반응을 예측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예: Leidner et al., 2010; Li et al., 2021; Roccas et al., 2006). 이 방면의 연구에 따르면, 내집단 동일시의 두 차원 중 친양은 구성원들이 내집단을 어떻게 표상하는지와 관련되며(Roccas & Berlin, 2016),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고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성과 상관이 높아서 내집단의 과오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방어적 반응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내집단이 가해자인 맥락에서 내집단 친양은 외집단을 비인간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축

소하는 경향성을 예측한다(Leidner et al., 2010). 이와 유사하게, 내집단 친양 수준이 높을수록 가해 집단 구성원들이 외집단에 대한 가해 사건을 시간적으로 멀게 지각하고 피해 외집단에 대한 공감 수준이 낮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Li et al., 2021).

반면에, 내집단 애착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의할 때 특정 집단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지니는지에 초점을 둔 동일시로, 내집단의 발전을 위해 집단의 과오를 성찰하고 교정하려는 경향성과 상관이 높다(Roccas & Berlin, 2016). 내집단 애착은 내집단에 관한 긍정적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보에 대한 체계적 처리를 수반하여 내집단의 양가성에 대한 수용을 예측한다(Costarelli & Colis, 20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집단 애착은 집단의 과오에 대한 구성원들의 성찰과 숙고를 수반하여 내집단의 결함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교정함으로써 집단의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반응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 내집단 애착은 외집단에 해를 입힌 내집단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 외집단에 대한 보상을 수반하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지지, 그리고 무력이 아닌 외교적 방법에 따른 갈등 해결책을 지지하는 태도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Li et al., 2023; Selvanathan & Leidner, 2020).

이처럼 집단 간 태도 및 행동에서 내집단 동일시의 두 차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국가 간 가해-피해 맥락에서 가해 집단 구성원들의 내집단 동일시가 집단 간 화해 및 갈등해소를 저해하는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피해 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사과가 이루어진 후, 가해 집단 구성원들의 내집단 동일시가 피해 외집단에 대한 배상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사과 후 피해 외집단에 대한 가해 집단 구성원들의 배상 의도가 내집단 동일시의 두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책임 지각이 매

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내집단 동일시와 피해 외집단에 대한 배상 의도의 관계에서 도덕 신용과 개인의 책임 지각의 역할

Shnabel과 Nadler(2008)는 도덕성이 인간 사회의 보편가치라는 점에 착안하여 집단 간 가해-피해 맥락에서 도덕성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이 제안한 욕구-기반 모델에 따르면, 외집단에 피해를 입힌 가해 집단의 구성원들은 내집단의 도덕적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욕구를 지닌다. 따라서 가해 집단 대표의 사과는 훼손된 내집단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Barlow et al., 2015), 가해 집단 구성원들이 피해 집단과의 화해를 지지하는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한다(예: Shnabel et al., 2009). 이처럼 가해 집단 대표의 사과가 집단의 도덕성을 복구하고 집단 간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내집단 대표의 사과가 집단 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개인의 도덕 행위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행위를 통해 기준선 이상의 도덕성을 실현했다고 인식하면 이후 도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실행하는 데 제약을 덜 느끼는 일종의 도덕 면허(moral licensing, Miller & Effron, 2010)를 지각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과거에 행한 도덕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도덕성이 높아져서 기저선 이상의 높은 도덕성을 확보해두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정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도덕성이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에게 기저선 만큼의 도덕성이 남아 있다고 지각하는 도덕 신용(moral credit) 현상도 보고되었다(Merritt et al., 2010). 도덕 면허나 도덕 신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도덕 행위를 억제하는 심리기제에 주목한 반면, 가해-피해 관계에 있는 집단 간 맥락에서 도덕성 욕구의 충족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다. 본 연구는 도덕성 욕구의 충족이 후속 행동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주목

하여, 집단 대표의 사과로 인해 가해 집단 구성원들의 도덕성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내집단 동일시 유형의 차별적 영향을 제안한다.

욕구-기반 모델과 도덕 신용에 관한 연구로부터 추론해보면, 가해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대표의 사과를 통해 내집단의 도덕성이 충족되었다고 지각할 경우 더 이상 내집단이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추가적인 도덕적 행위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집단 간 사과 맥락에서 두 가지 동일시 유형에 따라서 가해 집단 구성원들에게 우세한 동기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두 가지 동일시 유형에 따라서 내집단 대표의 사과가 각기 다르게 해석되어 내집단의 ‘도덕 신용’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 추론에 대한 간접적 증거는 개인의 내집단 찬양 수준에 따라서 도덕 판단의 기반이 달라짐을 확인한 Leidner와 Castano(2012)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자들은 내집단의 도덕성에 관한 구성원들의 판단이 위해(harm), 공정성, 충성심, 그리고 권위라는 4가지 도덕성 기반에 근거함에 주목하여, 내집단 찬양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 간 관계에서 내집단 편향적인 도덕성 기반의 접근성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미국(내집단) 또는 호주(외집단)가 이라크 시민을 학살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구성원의 도덕성 기반 접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본 결과, 내집단 찬양 수준이 높을수록 내집단의 도덕 위반 사건을 접한 후 충성심 기반 판단(‘내집단에 이익이 되는가?’)과 권위 기반 판단(‘내집단의 권리에 동조하는 것인가?’)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단 동일시의 두 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Roccas et al., 2006)가 시사하듯이, 내집단 찬양은 내집단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집단의 권리에 복종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수반한다. 반면에, 내집단 애착은 내집단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느끼고 내집단의 발전과 도덕성 회복

에 기여하려는 경향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내집단 대표가 피해 외집단에 대해 사과를 한 경우, 내집단 찬양은 내집단의 이익과 권위를 기반으로 해당 행위를 해석하여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을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내집단 애착은 외집단이 입은 피해와 공정성을 기준으로 도덕 판단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집단 대표의 사과를 통해 내집단의 도덕 신용을 지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추론에 따르면 피해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 대표의 사과 후 내집단 찬양은 내집단에 대해 지각된 도덕 신용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내집단 애착은 도덕 신용을 부적으로 예측하거나 유의미한 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내집단 동일시의 두 유형에 따라서 사과 후 가해 집단 구성원들의 도덕 신용 지각이 달리 나타난다는 가정에 더해, 본 연구는 도덕 신용 지각이 외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가해 집단 구성원들의 책임 지각을 매개로 외집단에 대한 배상 의도를 예측하는 순차적 매개모형을 추론하였다. 집단 간 맥락에서 내집단의 도덕적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정체성에 위협을 초래 하므로, 가해 집단 구성원들은 이러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외집단의 피해를 축소하여 지각하거나 내집단의 과오를 정당화하고, 내집단이 외집단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제공했다고 지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적 이탈을 도모한다(Bandura, 1999; Choi & Euh, 2019). 따라

서, 가해 집단 구성원들이 도덕적 이탈에 매몰되지 않고 피해 외집단에 대한 후속 배상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내집단의 도덕적 결함을 인정하고 외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내집단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Wohl et al., 2006). 이 주장과 일관되게, 내집단이 외집단에 피해를 입힌 집단 간 맥락에서 외집단의 피해에 대한 가해집단 구성원들의 책임 지각은 집단-기반 죄책감(Roccas et al., 2006), 피해 집단에 대한 공감(Čehajić-Clancy et al., 2009), 외집단에 대한 배상 정책 지지(Čehajić-Clancy et al., 2011), 외집단 비인간화 억제(Castano & Giner-Sorolla, 2006) 등을 예측하였다. 이를 본 연구와 관련지어 추론해보면, 가해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대표의 사과로 인해 내집단의 도덕적 결함이 해소되고 도덕성이 회복되었다고 인식함으로써 내집단에 대해 도덕 신용을 지각하고, 그에 따라서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내집단 동일시의 두 유형이 각각 내집단 대표의 사과 후 내집단의 도덕 신용 지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도덕 신용 지각 수준이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지각을 매개로 외집단에 대한 후속 배상 의도를 예측하는 매개경로를 추론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그림 1).

가설 1-1. 내집단 찬양은 후속 배상 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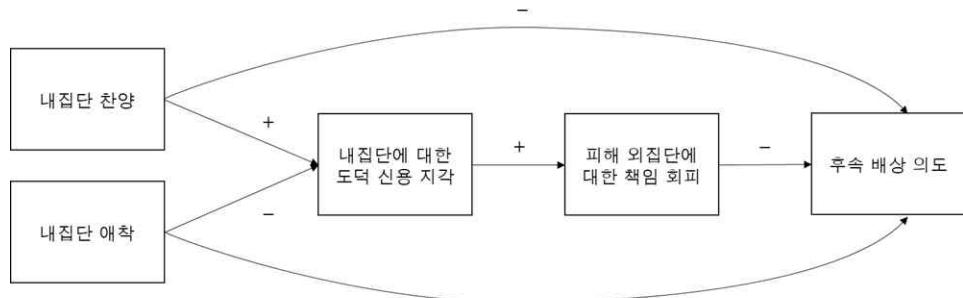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2. 내집단 애착은 후속 배상 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한다.

가설 2. 내집단 찬양(가설 2-1)과 내집단 애착(가설 2-2)이 각각 후속 배상 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내집단에 대해 지각된 도덕 신용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지각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

연구 개관

피해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 사과 후 내집단 애착과 내집단 찬양이 각각 후속 배상 의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 관계에서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과 외집단의 피해에 대한 책임 지각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장면은 베트남전 기간 동안 발생했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수반(대통령)이 사과하는 상황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집단 간 맥락은 내집단(한국)이 외집단에 명백한 피해를 입혔으며 연구 참가자들(한국인)이 아닌 내집단의 일부 구성원들이 가해자인 사례라는 점에서 집단 간 정의(intergroup justice)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과 일관된다(예: Doosje et al., 1998; Choi & Euh, 2019).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인 총 598명을 대상으로 두 편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은 두 가지 동일시 유형 각각이 후속 배상 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2는 매개변수를 포함한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두 연구 모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은 내집단 동일시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한 후, 실험자가 뉴스 기사로 소개한 기사문을 읽었다. 이 기사문은 한국군이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관한 사실 정보와 함께 한국 대통령이 베트남 주석에게 사과했다는 가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매개변수(연구 2)와 준거 변수를 측정하는 문

항들에 응답하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의 정치성향과 인구통계변수를 측정한 후, 참가자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 최근 경험(예: 베트남전 한국군 만행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과 의혹점검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시대를 경험한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전 태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분석에서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또한 정치성향에 따라 우세한 도덕성 기반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이재호, 조궁호, 2014)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준거 변수인 후속 배상 의도는 집단 간 정의를 연구한 문헌을 토대로 정의 회복에 기여하는 행동을 지지하거나 참여할 의도로, 외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가해 내집단이 피해 복구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등의 상징적 배상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외집단 보상 의도, 내집단 교정 행동 의도, 외집단 피해자를 돋는 상설기구에 봉사를 제공 할 의도와 기부 의도 등 총 4가지 하위 요소를 포함하여 후속 배상 의도 지표를 구성하였다. 연구는 모두 대학 기관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수행되었으며(IRB 승인번호: SKKU 2023-10-038),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29.0과 R(v.4.0.3; R Core Team, 2020)을 활용하였다. 연구 1의 확인적 요인 분석에는 χ^2 을 자유도로 나눈 값과, RMSEA, SRMR, CFI 지수를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기준에 따라 χ^2/df 는 3 미만 (Marsh & Hocevar, 1985), RMSEA는 .08 이하 (Browne & Cudeck, 1993), SRMR은 .08 이하(Hu & Bentler, 1999), CFI는 .90 이상(Bentler, 1990)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였다.

연구 1

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이 신뢰를 형성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가해 집단의 지속적인 사과와 배상을 통한 집단 간 정의 회복이 중요하다(Nadler & Shnabel, 2008).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 1은 피해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 사과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두 가지 동일시 유형이 각각 후속 배상 의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방법

조사 개요 및 참가자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대 별로 60명씩 할당하고, 남성과 여성을 50%로 동일하게 수집하는 비례할당표집으로 응답자를 모집하였다(평균 연령 44.45세, 표준편차 13.42).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 후 조사업체에 의해 약속된 사례를 제공받았다.

측정 도구

예측 변수: 내집단 찬양, 내집단 애착

두 유형의 내집단 동일시는 Rocca 등(2008)이 개발한 16개 문항을 번안하여 측정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이 척도는 내집단 애착 8문항, 내집단 찬양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집단 애착은 내집단 기여(ingroup commitment)와 내집단 중요성(ingroup importance) 각 4문항, 그리고 내집단 찬양은 내집단 우월성(ingroup superiority)과 내집단 복종(ingroup deference)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내집단 애착과 내집단 찬양 두 가지 유형 비교에 목적이 있으므로, 각 차원의 두 가지 하위척도를 통합하여 두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2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R의 lavaan 패키지(Rosseel, 2012)를 이용

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집단 찬양과 내집단 애착으로 나뉘는 2요인 구조의 모형 적합도는 $\chi^2(89) = 428.586$, $\chi^2/df = 4.816$, CFI = .886, RMSEA = .113, SRMR = .056로 나타났다. Kaplan(1990)의 제안에 따라 수정지수와 요인부하량을 바탕으로 이론에서 상정한 두 가지 요인에 가장 잘 수렴하는 문항을 확인했을 때, 내집단 찬양 5개 문항(예: “한국은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낫다”,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충성스럽지 않은 행동이다” 등)과 내집단 애착 5개 문항(예: “나는 내가 한국에 기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나는 한국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등)이 선별되었다. 선별된 문항들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가 좋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chi^2(34) = 97.841$, $\chi^2/df = 2.878$, CFI = .963, RMSEA = .079, SRMR = .042. 두 척도 각각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내집단 찬양 .79, 내집단 애착 .92이며, 각 척도 문항들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준거 변수: 후속 배상 의도

외집단에 대한 후속 배상 의도는 외집단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10개의 행동 진술문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예: “한국인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들을 돋기 위한 서명 운동 전개”, “베트남 정부 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집회 참가”, “베트남 민간인 희생자와 유가족을 돋는 상설기구에 봉사를 제공할 의도”). 이 문항들과 더불어 참가자가 베트남 희생자와 유가족을 돋는 상설기구에 기부할 의도를 물었다(“귀하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 5만원 있다고 가정할 때, 귀하가 위의 기구에 기부를 하신다면 얼마를 기부하시겠습니까?”, 1 = 0원, 11 = 50,000원). 기부 의도 문항과 나머지 문항들의 측정 단위가 상이

하므로 모든 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 한 후 평균하여 후속 배상 의도 지표로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 .92$). 질문지의 마지막에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을 1문항(“귀하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1=진보, 4=중도, 7=보수”)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과 연령은 통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와 변수 간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Pearson 상관 분석 결과, 내집단 찬양($r = .19, p < .01$)과 내집단 애착($r = .34, p < .01$) 모두 후속 배상 의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두 상관계수 간 차이가 유의했다($z = 1.96, p = .049$). 그리고 내집단 애착과 내집단 찬양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69, p < .01$), 이는 .5에서 .7사이로 관찰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예: Leidner et

al., 2010; Li et al., 2021).

가설 1-1과 가설 1-2에 진술한 내집단 찬양과 내집단 애착의 독립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동일시 중 다른 한 차원을 통제하고 편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집단 찬양과 후속 배상 의도 간 편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 = -.03, p = .574$). 반면, 내집단 내집단 애착과 후속 배상 의도 간 편상관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 = .29, p < .01$).

논 의

연구 1에서 베트남전 동안 발생했던 한국군 만행을 사례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두 가지 동일시 유형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후속 배상 의도 간 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가설과 부분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편상관 분석 결과 내집단 찬양은 가설과 달리 후속 배상 의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내집단 애착과 후속 배상 의도 간에는 가설과 일관되게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1. 측정 변수들 간 상관과 기술통계

	1	2	3	4	5
1. 내집단 찬양	-	.69**	.19**	.21**	.26**
2. 내집단 애착		-	.34**	.17**	.37**
3. 후속 배상 의도			-	-.18**	.19**
4. 정치 성향				-	-.05
5. 연령					-
평균	3.97	4.72	0.00	4.04	44.45
표준편차	1.12	1.18	0.80	1.10	13.42
왜도	-0.01	-0.37	-0.37	-0.03	0.01
첨도	-0.17	0.17	0.30	1.32	-1.24

주. * $p < .05$, ** $p < .01$

후속 배상 의도는 측정 문항들에서 얻은 점수를 z 점수로 변환 후 평균한 값임.

한 가지 주목할 점은, Pearson 상관계수로 보았을 때 서구에서 보고된 일부 선행 연구에서 두 가지 동일시 유형과 정의 추구 간에 부적 상관이 관찰된 반면(예: Leidner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동일시 모두 정의 추구(후속 배상 의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가 내집단 사과 이후 맥락을 다룬 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내집단 동일시가 내집단 원형(prototype)에 대한 동조를 촉진한다는 점(Knippenberg & Wilke, 1992)에 비추어 볼 때, 내집단 대표의 사과 후 상황을 다룬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대표의 사과에 반영된 화해 규범에 동조한 결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내집단 대표의 사과를 통해 가해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간 화해 규범을 인식한다면 내집단 친양이 후속 배상 의도를 저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본 연구에서 내집단 애착의 효과를 제거한 편상관 분석 결과 내집단 친양이 후속 배상 의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인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대로 집단 간 사과 장면에서 두 가지 내집단 동일시 유형 각각의 효과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 2에서는 사과 후 맥락에서 두 가지 동일시와 후속 배상 의도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를 조명함으로써 연구의 정교화 및 확장을 시도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가해에 대해 내집단의 사과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후, 가해 집단 구성원들의 동일시 유형이 후속 배상 의도를 예측하는 경로에서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 책임 지각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방법

조사 개요 및 참가자

만 19세 이상부터 69세 이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응답자를 모집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온라인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를 가운데 2명의 응답자를 선별 문항 기준으로 제외하였다. 선별에 사용된 문항은 “귀하가 앞서 질문들에 응답하는 데 영향을 미친 최근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귀하가 생각하기에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로 총 두 문항이었다. 1명의 참가자가 조사 참여 중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1명의 참가자는 연구 가설을 알아차린 것으로 판명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두 명의 응답자 제외 여부와 관계 없이 주요 분석에서 모두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최종 참가자는 총 298명이었으며, 응답자 분포는 여성 49.7%, 20대 21.8%, 30대 22.1%, 40대 21.8%, 50대 22.1%, 60대 12.1%(평균 연령, 42.34세, 표준편차 12.55)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 후 조사업체에 의해 약속된 사례를 제공받았다.

측정 도구

예측 변수: 내집단 친양, 내집단 애착

내집단 동일시는 연구 1에서 보고한 내집단 친양 다섯 문항과 내집단 애착 다섯 문항을 사용하였고, 내집단 친양과 내집단 애착 2요인 구조의 적합도는 $\chi^2(34) = 115.486$, $\chi^2/df = 3.397$, CFI = .948, RMSEA = .090, SRMR = .047로 양호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내집단 애착 .91, 내집단 친양 .78이었다.

매개변수: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지각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예측 변수 측정 후 과거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내집단 대표의 사과 정보로 이루어진 기사문을 제시하였다.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은 Lin 등(2016)이 구성한 다섯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측정 문항들은 내집단 대표의 사과에 따른 결과로 내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지각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예: “베트남에 사과함으로써 한국의 도덕성을 드러내 보인 것 같다”, “한국은 베트남의 용서를 얻기 위해 할 일을 다 했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 = .90$).

피해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책임 지각은 유관 선행 연구(Cehajić-Clancy et al., 2011)를 토대로 한국인으로서 참가자가 지각하는 책임을 측정하는 두 개 문항(“피해 입은 베트남인들을 내가 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베트남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을 사용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책임을 회피함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 = .81$). 책임 회피를 표명하는 진술문을 사용한 이유는 내집단의 명백한 과오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정도를 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준거 변수: 후속 배상 의도

연구 1과 일관되게, 외집단 보상과 관련된 20개의 행동 진술문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예: “현 사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축구”, “피해 입은 베트남인들을 돋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 “베트남 민간인 희생자 및 유가족을 돋는 기구에 봉사를 제공할

의도”). 이 문항들과 더불어 참가자가 베트남 희생자와 유가족을 돋는 상설기구에 기부할 의도를 물었다(“귀하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 5만원 있다고 가정해주십시오. 만약 귀하가 위의 기구에 기부를 하신다면 얼마를 기부하시겠습니까?”, $1 = 0\text{원}$, $11 = 50,000\text{원}$). 기부 의도 문항과 나머지 문항들의 측정 단위가 상이하므로, 연구 1과 동일하게 모든 점수를 z점수로 표준화 한 후 평균하여 후속 배상 의도 지표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5$).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응답자 연령과 정치성향은 통제하였다.

결과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

표 2에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웨도의 절대값은 3을, 첨도의 절대값은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었다(Kline, 2011). Pearson 상관 분석 결과 내집단 친양은 내집단 애착($r = .67, p < .01$),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r = .52, p < .01$), 후속 배상 의도($r = .21,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집단 애착은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r = .39, p < .01$),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r = -.31, p < .01$), 후속 배상 의도($r = .34, p < .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은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r = .12, p < .05$)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후속 배상 의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는 후속 배상 의도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r = -.51, p < .01$).

표 2. 측정 변수들 간 상관과 기술통계

	1	2	3	4	5	6	7
1. 내집단 찬양	-	.67**	.52**	-.11	.21**	.19**	.29**
2. 내집단 애착		-	.39**	-.31**	.34**	-.02	.43**
3.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	.12*	-.02	.28**	.07
4.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	-.51**	.14*	-.25**
5. 후속 배상 의도					-	-.14*	.17**
6. 정치 성향						-	-.00
7. 연령							-
평균	4.13	4.78	4.25	3.82	0.00	4.04	42.34
표준편차	1.04	1.13	1.13	1.46	0.81	1.24	12.55
왜도	-0.19	-0.42	-0.20	0.14	-0.14	0.01	0.11
첨도	0.35	0.20	0.34	-0.39	0.04	0.39	-1.14

주. * p < .05, ** p < .01

후속 배상 의도는 측정 문항들에서 얻은 점수를 z점수로 변환 후 평균한 값임.

편상관 분석 결과, 연구 1과 일관되게 내집단 애착, 정치 성향, 연령을 통제한 후 내집단 찬양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r = .01, p = .879$), 내집단 찬양과 정치 성향을 통제한 후 내집단 애착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편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했다($r = .23, p < .01$). 또한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의 편상관은 내집단 찬양($r = .33, p < .01$)과 내집단 애착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r = .13, p < .01$). 그리고, 내집단 찬양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의 편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r = .10, p = .080$), 내집단 애착은 부적 편상관($r = -.24, p < .01$)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변수 간 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가정과 일관된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내집단 애착과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간에 정적 편상관이 발견된 것은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상관 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내집단 찬양·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간의 편상관 계수와 내집단 애착·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간의 편상관 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2.51, $p = .012$).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

내집단 동일시의 두 가지 유형이 서로 독립적인 구성개념이며 집단 간 태도 및 행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관점(Roccas et al., 2006)을 토대로, 내집단 찬양과 내집단 애착 각각을 예측변수로 설정하고 한 변수의 효과를 검증할 때 다른 한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분석 절차는 다수의 유관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방식이다(예: Costarelli & Colis, 2016; Leidner et al. 2010; Li et al., 2021). 내집단 찬양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관계, 그리고 내집단 애착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관계 각각에서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신뢰구간은 95%,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10,000으로 설정하였다. 내집단 찬양이 후속 배

상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할 때는 정치 성향, 연령, 내집단 애착의 효과를 통제하였고, 내집단 애착이 후속 배상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할 때는 정치성향, 연령, 내집단 찬양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내집단 찬양과 후속 배상 의도 간 관계에서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

내집단 찬양과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경로계수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내집단 찬양 수준이 높을수록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수준이 높았으며($B = 0.437, p < .001$),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수준이 높았다($B = 0.297, p < .001$). 또한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후속 배상 의도가 낮았다($B = -0.238, p < .001$).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Shrout & Bolger, 2002)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Shrout과 Bolger(2002)에 따르면 매개효과의 추정값이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의 내집단 찬양과 후속 배상 의도 간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0.074, p = .189$). 총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 = -0.065, 95\% \text{ CI } [-0.133, -0.001]$, 단순매개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내집

표 3. 내집단 찬양,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경로계수

경로	<i>B</i>	<i>SE</i>	<i>t</i>	95% 신뢰구간	
				<i>LLCI</i>	<i>ULCI</i>
내집단 찬양 →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0.437	0.074	5.911***	0.292	0.583
내집단 찬양 →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0.059	0.112	0.529	-0.161	0.279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0.297	0.083	3.563***	0.133	0.461
내집단 찬양 → 후속 배상 의도	0.074	0.057	1.318	-0.037	0.186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 후속 배상 의도	-0.047	0.043	-1.085	-0.131	0.038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 후속 배상 의도	-0.238	0.030	-8.045***	-0.296	-0.180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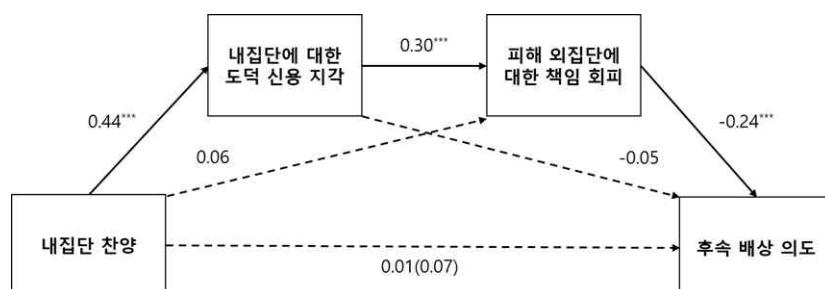


그림 2. 내집단 찬양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순차적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내집단 찬양,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가 후속 배상 의도에 미치는 효과 분해

총효과 및 직접효과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내집단 찬양 → 후속 배상 의도	0.009	0.059	-0.108	0.126
직접효과	내집단 찬양 → 후속 배상 의도	0.074	0.057	-0.037	0.186
	간접효과	B	SE	LLCI	ULCI
	총 간접효과	-0.065	0.034	-0.133	-0.001
내집단 찬양 →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 후속 배상 의도		-0.020	0.020	-0.064	0.016
내집단 찬양 →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 후속 배상 의도		-0.014	0.029	-0.070	0.043
내집단 찬양 →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 후속 배상 의도		-0.031	0.013	-0.059	-0.010

단 찬양이 후속 배상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가설 2-1)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은 -0.059, 상한은 -0.01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순차적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내집단 애착과 후속 배상 의도 간 관계에서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

내집단 애착과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경로계수를 표 5와 그림 3에 제시하

였다. 내집단 애착이 높을수록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이 높았으며($B = 0.160, p = .025$),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수준이 높았다($B = 0.297, p < .001$). 또한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후속 배상 의도가 낮았다($B = -0.238, p < .001$).

내집단 애착이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를 통해 후속 배상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두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내집단 애착과 후속 배상 의도 간 직접효과가 통계

표 5. 내집단 애착,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경로계수

경로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내집단 애착 →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0.160	0.071	2.261*	0.021	0.299
내집단 애착 →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0.476	0.102	-4.673***	-0.676	-0.275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0.297	0.083	3.563***	0.133	0.461
내집단 애착 → 후속 배상 의도	0.133	0.053	2.492*	0.028	0.238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 후속 배상 의도	-0.047	0.043	-1.085	-0.131	0.038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 후속 배상 의도	-0.238	0.030	-8.045***	-0.296	-0.180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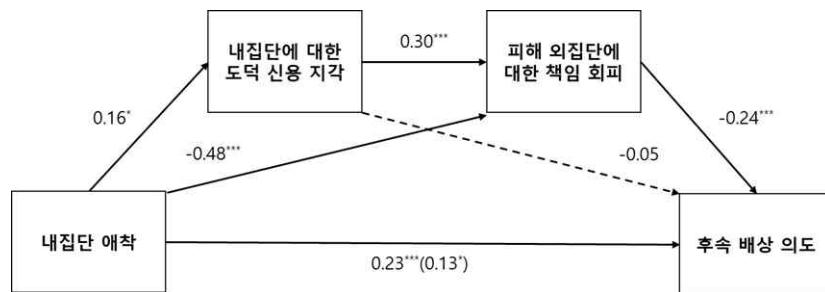


그림 3. 내집단 애착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순차적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내집단 애착,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가 후속 배상 의도에 미치는 효과 분해

		<i>B</i>	<i>SE</i>	95% 신뢰구간	
				<i>LLCI</i>	<i>ULCI</i>
총효과	내집단 애착 → 후속 배상 의도	0.228	0.057	0.116	0.340
직접효과	내집단 애착 → 후속 배상 의도	0.133	0.053	0.028	0.238
간접효과		<i>B</i>	<i>SE</i>	<i>LLCI</i>	<i>ULCI</i>
총 간접효과		0.095	0.032	0.037	0.160
내집단 애착 →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 후속 배상 의도		-0.008	0.009	-0.029	0.007
내집단 애착 →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 후속 배상 의도		0.113	0.030	0.058	0.175
내집단 애착 →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 →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 → 후속 배상 의도		-0.011	0.007	-0.027	0.001

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33$, $p = .013$). 총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 = 0.095$, 95% CI [0.037, 0.160],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의 단순매개효과에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B = 0.113$, 95% CI [0.058, 0.175].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가설 2-2)는 관찰되지 않았다, $B = -0.011$, 95% CI [-0.027, 0.001].

논의

연구 2는 연구 1을 확장하여 피해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사과 후 내집단 동일시의 두 가지 유형이 후속 배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2에서는 내집단 친양이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매개로 후속 배상 의도를 예측하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가설 2-1과 일관된 결과이다. 반면, 내집단 애착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관계에서는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의 단순매개효과만 관찰되어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2-1이 지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집단 친양과 후속 배상 의도 간의 총 효과 및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개효과 분석에 관한 논의에서 독

립 변수와 준거 변수 간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매개 효과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Hayes, 2009; Rucker et al., 2011; Shrouf & Bolger, 2002)이 우세하므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모형 분석은 이론적으로 유효하다.

연구 2에서 가설 2-2가 지지되지 않은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다. 첫째, 내집단 애착이 예상과 달리 도덕 신용과 정직 상관을 보인 결과는 피해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사과가 가해 집단 구성원에게 유발하는 심리를 통해 그 배경을 추론해 볼 수 있다. Zaiser와 Giner-Sorolla(2013)에 따르면, 가해 집단 구성원들은 내집단의 사과로부터 내집단의 이미지 향상과 외집단에 대한 의무 전가(obligation shifting)를 동시에 지각한다. 본 연구와 같은 집단 간 피해 상황에서 가해 집단 구성원들은 내집단의 도덕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Shnabel & Nadler, 2008), 본 연구에서 내집단 사과는 곧 내집단의 도덕 이미지 상승으로 지각되었고 그에 따라 내집단 애착 역시 도덕 신용 지각과 정직 관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내집단 애착이 책임 지각의 단순매개로 후속 배상 의도를 예측한 결과는 내집단 애착과 도덕 판단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그 배경을 추론해볼 수 있다. Leidner와 Castano(2012)의 연구에 따르면, 내집단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도덕 판단 상황에서 공정성과 위해를 중요한 도덕 기반으로 삼는다. ‘공정성’ 도덕 기반은 타인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였는지를, 그리고 ‘위해’ 도덕 기반은 타인에게 해를 끼쳤는지를 반영한다. 또한 Costarelli와 Colis(2016)는 내집단 애착이 구성원으로 하여금 내집단의 양가성을 인식하도록 돋고, 내집단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이성적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내집단 애착은 외집단에 대한 후속 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참가자들이 공정성 도덕 기반을 활용하여 외집단에 대한 배상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로부터 내집단 애착은 내집단 사과에 따라 내집단의 도덕 이미지 상승을 지각하더라도 이를 비행동(inaction)의 구실로 활용하지 않고 내집단 책임을 개인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통해 후속 배상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구 2의 결과는 내집단 동일시의 두 가지 유형이 피해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사과 후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내집단 찬양과 후속 배상 의도 간 관계를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 외집단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로를 관찰함으로써 선행 연구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내집단 찬양은 내집단의 긍정적 표상을 강화하는 반면, 내집단 애착은 피해 외집단에 대한 보상 의도를 조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기제임을 알 수 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유관 선행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던 두 가지 동일시 유형과 배상 의도 간의 관계를 ‘사과 후’ 장면에서 조명하고, 그 기제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내집단의 과거 잘못에 대해 내집단 지도자가 대표로 사과한 후, 내집단 찬양과 내집단 애착이 각각 후속 배상 의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고, 외집단에 대한 사과 후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이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에 선행하여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사과 후’ 장면에서도 내집단 애착은 후속 배상 의도와 유의한 정직 관계를 나타냈으며, 내집단 찬양은 내집단 애착을 통제하면 후속 배상 의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내집단 찬양은 내집단에 대한 도덕 신용 지각과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후속 배상 의도를 예측하였으나, 내집단 애착은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만을 통해 후속 배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동일시 유형의 차별적 효과를 관찰한 기존 연구와 일관된 것으로,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두 가지 동일시 유형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집단 구성원의 태도를 조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집단 간 갈등과 화해에 대한 두 가지 동일시 유형의 효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내집단과 외집단이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있는 갈등 상황에서 내집단 찬양과 내집단 애착이라는 두 가지 동일시 유형과 배상 의도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내집단의 사과 여부에 관한 정보 없이 구성원들이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가해 사실을 알게 되거나, 내집단의 과오에 관한 정보를 점화했을 때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국가 간 갈등의 특성 상 일회성 사과나 배상만으로 집단 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 집단은 사과 후에도 추가 배상을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특히, 연구 2에서는 내집단 대표가 피해 외집단에 사과를 한 상황에서 내집단 찬양은 도덕 신용 지각과 책임 회피를 매개로 후속 배상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내집단 찬양의 성분이 강조될 경우, 가해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간 화해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내집단 동일시의 두 단면이 ‘사과 후’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유관 선행 연구를 확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내집단이 피해를 입힌 외집단에 대한 책임감 지각의 매개효과를 관찰함으로써 두 가지 동일시 유형의 차별적 효과를 다룬 유관 문헌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를 내

집단의 도덕적 과오에 대한 책임감의 개인적 수용 정도로 정의하고, 개인이 가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갈등 해결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달리, 회복적 정의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내집단이 도덕적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이 지각한 ‘집단의 책임’(예: 내집단이 갈등 사건에 대해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을 매개변수로 측정하였다(예: Čehajić-Clancy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정의한 ‘피해 외집단에 대한 책임 회피’는 내집단이 저지른 부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의 책임감 지각 관련 변수들과 맥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책임 지각 변수들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피해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책임 회피를 내집단 애착이 부적으로 예측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내집단 애착은 내집단 찬양과 달리 집단 간 관계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집단과 구성원 개인의 연결성을 증진하는 성분임을 추론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도덕 면허 현상을 집단 간 맥락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도덕 면허 관련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좋은 행동이 자신의 도덕성 인식과 후속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집단을 기반으로 한 도덕 면허 연구도 일부 보고되기는 했지만, 이 연구들은 다른 집단 구성원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행동(예: 조직 내에서의 이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예: Kouchaki, 2011).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집단 동일시의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도덕 신용을 지각하고 활용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집단 기반 도덕 면허 연구에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현실 적용 측면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가해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간 화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태도와 행동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서 집단 동일시의 어떤 성분이 긍정적 기여를 하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베트남, 일본 등과 미해결된 외교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리적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내집단 애착이 '사과 후' 상황에서 집단 간 화해와 정의 추구를 촉진하는 반면, 내집단 찬양은 내집단의 과오를 정당화하고 집단 간 화해와 정의 추구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이는 집단 간 화해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내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착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내집단 찬양이 항상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부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집단의 기술과 개인함을 강조함으로써 집단-기반 자부심(group-based pride)이 유발된 상황에서는 내집단 찬양 수준이 높을수록 내집단의 과오에 대한 집단-기반 죄책감(group-based guilt)을 강하게 느낀다(Schorri-Eyal et al., 2015). 이 연구 결과와 본 연구를 종합하면, 내집단 찬양이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집단이 외집단에 대해 수행한 긍정적 행위(예: 사과와 배상)'보다는 '내집단의 긍정적 특성 자체'에 근거한 일종의 확증(affirmation)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및 현실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내집단 애착과 내집단 찬양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선별된 5문항씩만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Rocca 등(2008)의 16문항 척도는 좋지 않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한국에서 내집단 애착과 내집단 찬양의 심리적 특징은 서구 사회에서 보고된 바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에서 내집단 찬양의 하위요소인 '내집단 우월성'의 측정문항(예: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은 내집단 애착에 교차부하 되는 양성이 나타났다. Li 등(2023)의 연구에서도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중국 등 7개국을 대상으로 Rocca 등(2006)의 척도를 이용하여 동일시를 측정한 결과, 중국 표본에서만 내집단 찬양의 신뢰도가 낮았다. 이는 내집단 찬양을 측정하는 도구가 동서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내집단 동일시를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탐구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국가 동일시 개념을 정교하게 측정하고 타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개념 모형과 분석 결과는 다양한 집단 간 관계 중 하나의 특수한 맥락에 국한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과거 내집단 구성원 일부가 외집단에 대해 저지른 잘못을 현재의 집단 대표가 사과한 상황에 기반하여 연구가 설계되었다. 비록 이러한 상황이 자주 관찰되기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가해-피해 현상은 본 연구와는 다른 다양한 특징들을 지닐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형한 장면은 참가자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가해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으며, 외집단에 대해 내집단이 이미 사과를 한 상황이다. 도덕 면허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 신용을 지각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과와 같은 선행 행동이 도덕성을 기저선보다 현저히 증가시키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여겨지고, 확보된 도덕성을 통해 바람직한 후속 행동을 하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지각해야 한다. 만약 가해 사건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외집단이 강력히 내집단을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하는 상황에서는 내집단의 사과가 충분히 높은 수준의 도덕 신용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덕 신용을 통한 정당화 보다는 피해 축소, 외집단 비인간화와 같은 도덕적 이탈 기제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내집단의 사과가 도덕성 지각을 통해 내집단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연구 장면을 내집단 사과 후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사과’가 오용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김현정과 박상희(2019)의 연구에서는 가해 집단의 사과가 가해 집단 구성원들의 외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는데,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사과 조건에서 사과하지 않은 조건보다 외집단 비인간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과가 화해를 촉진하기보다 내집단의 정당화를 강화하거나 내집단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내집단 사과의 효과가 내집단 동일시 유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집단 동일시 유형에 따라서 내집단의 사과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 다르다면, 내집단 애착은 사과를 내집단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기회로 지각하여 내집단 사과가 없을 때에 비해서 더 높은 화해적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내집단 찬양은 내집단 사과가 없을 때보다 내집단 사과가 있을 때 내집단의 도덕성이 충분하게 확보된 것으로 해석하여 낮은 화해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내집단의 사과 여부를 조작하여 두 가지 동일시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탐색함으로써 본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저자소개

김유진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동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연구 관심사에는 집단 간 갈등과 화해, 집단 간 도움 행동, 도덕적 면허

현상이 있다.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번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현정, 박상희 (2019). Ingroup's Apology For Past Wrongdoing Can Increase Outgroup Dehumanization.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25(1), 79-99.
<http://dx.doi.org/10.20406/kjcs.2019.02.25.1.79>
- 이재호, 조궁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판단기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1-26.
<https://doi.org/10.21193/kjspp.2014.28.1.001>
- Bandura, A. (1999). Moral disengagement in the perpetration of inhuman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3), 193-209.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303_3
- Barlow, F. K., Thai, M., Wohl, M. J. A., White, S., Wright, M.-A., & Hornsey, M. J. (2015). Perpetrator groups can enhance their moral self-image by accepting their own intergroup apolog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0, 39-50.
<https://doi.org/10.1016/j.jesp.2015.05.001>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https://doi.org/10.1037/0033-2909.107.2.238>
- Brewer, M. B. (2007).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Social categorization,

- ingroup bias, and outgroup prejudice. In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2nd ed., pp. 695-715). The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stano, E., & Giner-Sorolla, R. (2006). Not quite human: Infrahumanization in response to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intergroup kil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804-818.
<https://doi.org/10.1037/0022-3514.90.5.804>
- Čehajić-Clancy, S., Brown, R., & González, R. (2009). What do I care? Perceived ingroup responsibility and dehumanization as predictors of empathy felt for the victim group.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6), 715-729.
<https://doi.org/10.1177/1368430209347727>
- Čehajić-Clancy, S., Effron, D. A., Halperin, E., Liberman, V., & Ross, L. D. (2011). Affirmation, acknowledgment of in-group responsibility, group-based guilt, and support for reparativ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256-270.
<https://doi.org/10.1037/a0023936>
- Choi, H.-S., & Euh, H. (2019). Being nice isn't enough: Prosocial orientation and perceptions of self-uniqueness jointly promote outgroup repar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2*(8), 1215-1234.
<https://doi.org/10.1177/1368430218801078>
- Costarelli, S., & Colis, E. (2016). In-group attachment and glorification, perceptions of cognition-based ambivalence as contributing to the group, and positive affect.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24*, 31-39.
- Doosje, B., Branscombe, N. R., Spears, R., & Manstead, A. S. R. (1998). Guilty by association: When one's group has a negative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872-886.
<https://doi.org/10.1037/0022-3514.75.4.872>
- Doosje, B., Branscombe, N. R., Spears, R., & Manstead, A. S. R. (2006).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Group-Based Guilt: The Effects of Ingroup Identific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3), 325-338.
<https://doi.org/10.1177/1368430206064637>
- Dovidio, J. F., & Gaertner, S. L. (2010). Intergroup bias.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pp. 1084-1121). John Wiley & Sons, Inc..
<https://doi.org/10.1002/9780470561119.socpsy002029>
-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 (2002). Self and social ident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61-186.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3.100901.135228>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https://doi.org/10.1080/03637750903310360>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ornsey, M. J., & Wohl, M. J. A. (2013). We are sorry: Intergroup apologies and their tenuous link with intergroup forgivenes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4*(1), 1-31.
<https://doi.org/10.1080/10463283.2013.822206>
- Hu, L.-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Kaplan, D. (1990). Evaluating and modify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s: A review and recommend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37-155.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2502_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ress.
- Knippenberg, D. V., & Wilke, H. (1992). Prototypicality of arguments and conformity to ingroup norm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2), 141-155.
- Kosterman, R., & Feshbach, S. (1989). Toward a measure of patriotic and nationalistic attitudes. *Political Psychology*, 10(2), 257-274.
<https://doi.org/10.2307/3791647>
- Kouchaki, M. (2011). Vicarious moral licensing: The influence of others' past moral actions on mor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4), 702-715.
<https://doi.org/10.1037/a0024552>
- Leidner, B., Castano, E., Zaiser, E., & Giner-Sorolla, R. (2010). Ingroup glorification, moral disengagement, and justice in the context of collective viol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8), 1115-1129.
<https://doi.org/10.1177/0146167210376391>
- Leidner, B., & Castano, E. (2012). Morality shifting in the context of intergroup viol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1), 82-91.
<https://doi.org/10.1002/ejsp.846>
- Li, M., Leidner, B., Petrović, N., & Prelic, N. (2021). Close or Distant Past? The Role of Temporal Distance in Responses to Intergroup Violence From Victim and Perpetrator Perspec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7(4), 657-672.
<https://doi.org/10.1177/0146167220945890>
- Li, M., Watkins, H. M., Hirschberger, G., Kretchmer, M., & Leidner, B. (2023). National glorification and attachment differentially predict support for intergroup conflict resolution: Scrutinizing cross-country generaliz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3(1), 29-42.
<https://doi.org/10.1002/ejsp.2881>
- Lin, S.-H. (J.), Ma, J., & Johnson, R. E. (2016). When ethical leader behavior breaks bad: How ethical leader behavior can turn abusive via ego depletion and moral licens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1(6), 815-830.
<https://doi.org/10.1037/apl0000098>
- Marsh, H. W., & Hocevar, D. (1985). Application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the study of self-concept: First- and higher order factor models and their invariance across groups. *Psychological Bulletin*, 97(3), 562-582.
<https://doi.org/10.1037/0033-2909.97.3.562>
- Merritt, A. C., Effron, D. A., & Monin, B. (2010). Moral self-licensing: When being good frees us to be bad.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4(5), 344-357.
<https://doi.org/10.1111/j.1751-9004.2010.00263.x>
- Miller, D. T., & Effron, D. A. (2010). Psychological license: When it is needed and how it functions. In M. P. Zanna & J. M. Olson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3, (pp. 115-155).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10\)43003-8](https://doi.org/10.1016/S0065-2601(10)43003-8)
- Nadler, A., & Shnabel, N. (2008). Instrumental and socioemotional paths to intergroup reconciliation and the Needs-Based Model of Socioemotional Reconciliation. In A. Nadler, T. E. Malloy, & J. D. Fish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pp. 37-56).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5300314>.

- 003.0003
- Philpot, C. R., & Hornsey, M. J. (2008). What happens when groups say sorry: The effect of intergroup apologies on their recipi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4), 474-487.
<https://doi.org/10.1177/0146167207311283>
- Rocca, S., & Berlin, A. (2016). Identification with groups and national identity: Applying multidimensional models of group identification to national identification. In Grimm, J., Huddy, L., Schmidt, P., & Seethaler, J. (Eds.). *Dynamics of National Identity: Media and Societal Factors of What We Are* (1st ed.). (pp. 22-43).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746111>.
- Rocca, S., Klar, Y., & Liviatan, I. (2006). The paradox of group-based guilt: Mod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nflict vehemence, and reactions to the in-group's moral vio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4), 698-711.
<https://doi.org/10.1037/0022-3514.91.4.698>
- Rocca, S., Sagiv, L., Schwartz, S., Halevy, N., & Eidelson, R. (2008). Toward a unifying model of identification with groups: Integrating theoretical perspec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3), 280-306.
<https://doi.org/10.1177/1088868308319225>
- Rosseel, Y. (2012). lavaan: An R Package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2), 1-36.
<https://doi.org/10.18637/jss.v048.i02>
- Rucker, D. D., Preacher, K. J., Tormala, Z. L., & Petty, R. E. (2011). Mediation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Current practices and new recommendation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6), 359-371.
<https://doi.org/10.1111/j.1751-9004.2011.00355.x>
- Schatz, R. T., Staub, E., & Lavine, H. (1999). On the varieties of national attachment: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Political Psychology, 20*(1), 151-174.
<https://doi.org/10.1111/0162-895X.00140>
- Schori-Eyal, N., Tagar, M. R., Saguy, T., & Halperin, E. (2015). The benefits of group-based pride: Pride can motivate guilt in intergroup conflicts among high glorifi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1*, 79-83.
<https://doi.org/10.1016/j.jesp.2015.07.008>
- Selvanathan, H. P., & Leidner, B. (2020). Modes of Ingroup Identification and Notions of Justice Provide Distinct Pathways to Normative and Nonnormative Collective Action in the Israeli - Palestinian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4*(9), 1754-1788.
<https://doi.org/10.1177/0022002720907660>
- Shnabel, N., Nadler, A., Ullrich, J., Dovidio, J. F., & Carmi, D. (2009). Promoting reconciliation through the satisfaction of the emotional needs of victimized and perpetrating group members: The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8), 1021 - 1030.
<https://doi.org/10.1177/0146167209336610>
- Shnabel, N., & Nadler, A. (2008). A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Satisfying the differential emotional needs of victim and perpetrator as a key to promoting reconcil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1), 116-132.
<https://doi.org/10.1037/0022-3514.94.1.11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Staub, E. (1997).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Moving from embeddedness in the group to critical loyalty and action. In D. Bar-Tal & E. Staub (Eds.),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

- Tajfel, H. (1978). The achievement of inter-group differentiation.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pp. 77-100).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eam RC.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 Wenzel, M., Okimoto, T. G., Hornsey, M. J., Lawrence-Wood, E., & Coughlin, A.-M. (2017). The mandate of the collective: Apology representativeness determines perceived sincerity and forgiveness in intergroup contex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3(6), 758-771.
<https://doi.org/10.1177/0146167217697093>
- Wohl, M. J. A., Branscombe, N. R., & Klar, Y. (2006). Collective guilt: Emotional reactions when one's group has done wrong or been wronged.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7(1), 1-37.
<https://doi.org/10.1080/10463280600574815>
- Zaiser, E., & Giner-Sorolla, R. (2013). Saying sorry: Shifting obligation after conciliatory acts satisfies perpetrator 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4), 585-604.
<https://doi.org/10.1037/a0033296>

1 차원고접수 : 2025. 02. 12.

수정원고접수 : 2025. 05. 15.

최종게재결정 : 2025. 05. 26.

The Relationship Between Ingroup Identification and Support for Outgroup Reparation: Test of A Serial Mediation Model in A Post-Apology Context

Yoojin Kim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on intergroup victimization has identified two modes of ingroup identification - attachment and glorification - that independently predict reactions to the past wrongdoings committed by the ingroup.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each type of ingroup identification affects support for reparation to be provided to a victimized outgroup in a context where the ingroup (the perpetrator) has already apologized to the outgroup (the victim). We hypothesized that ingroup glorification would negatively predict support for reparation, whereas ingroup attachment would positively predict the support. In addition, we proposed that the perceptions of ingroup moral credit and perceived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ized outgroup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odes of ingroup identification and support for reparation. To test these hypotheses, we conducted two surveys with a total of 598 Korean adults. Our results showed the predicted serial mediation effect between ingroup glorification and support for reparation. In contras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group attachment and support for reparation, only a simple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responsibility was observe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intergroup reconciliation are discussed.

Key words : ingroup glorification, ingroup attachment, outgroup reparation, intergroup reconciliation